봉은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7월 개관

불교문화 체험 및 불교 사회기여 이바지

강남 입지로 잦은 국빈 방문
다도, 사찰음식 등 체험공간
1인실 및 다인실, 회의실 갖춰
관장에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
건강강좌도 진행, 지혜 전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템플스테이 체험관 다실 툇마루에서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봉은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내외빈들의 방문이 잦은 상황에서 주요인사들의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중점 활용될 예정이다.

국내외 외빈들이 서울 강남에서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탄생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템플스테이 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6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설을 공개했다. 그동안 영빈관으로 알려진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공식 명명 후 7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 봉은사는 강남 중심인 무역센터와 아셈 등과 인접한 위치적 특성으로 매년 해외 국빈들의 방문이 잦은 사찰이다. 최근 하인츠 피셔 오스트리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젤코 라이너 크로아티아 국회 부의장, 제난 라마단 쿠웨이트 장관 등이 방문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수요도 많아 2018년 봉은사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1만4026명으로 2017년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이 중 약 70%가 외국인인 상황.

이런 가운데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사찰문화와 사찰음식, 다도 등을 경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예정이다. 이미 기자간담회에 앞서 6월 20일 2019서울국제도서전으로 내한한 휴고 세쳐 국제출판협회 회장과 말레이시아, 체코, 독일, 브라질, 헝가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출판업계 종사자 및 작가 들이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템플라이프를 체험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그동안 봉은사를 방문한 외빈들이 한번쯤은 한국사찰에서 숙식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했는데, 봉은사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며 "많은 이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VIP들 뿐만 아니라 이주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전통사찰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현대인들의 수요에 맞게 1인 1실 3실과 가족 참가자를 위한 다인실이 겸비되어 있다. 각 숙실마다 화장실과 휴식공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다실과 회의와 강의가 가능한 다목적실도 구성돼 있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은 봉은사 자부담 8억5000만원에 불교문화사업단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됐다.

한편, 체험관에서는 각 주제에 맞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스님과 함께하는 건강 강좌다.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이 강좌는 현재 템플스테이 체험관 관장으로 추대될 조계종 前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문관 수행으로 총무원장 임기 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 온 자승 스님은 봉은사 옛 요사채였던 심검당에 주석하며 대중과의 만남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전부터 종단을 위해 고생하셨는데 퇴임 이후 사중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 회주로 모시고자 했다. 본인이 고사하시고 이른바 '밥값을 해야 하지 않냐' 고 하셔서 관장으로 모시고자 한다"며 "전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는 것은 봉은사와 종단 위상을 높일 것이다. 총무원장을 두 번 하신 경륜이 봉은사에서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봉은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석두 스님이 진행하는 스님과 함께하는 요가 강좌도 7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쌈짓돈부터 고액까지, 불교 기부 확대

아름다운동행, 개인단위 후원 증가 공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에 개인 단위의 고액 후원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후원자인 서울 팔정사 주지 진우 스님은 최근 아름다운동행이 탄자니아에서 운영 중인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에서 공부하는 탄자니아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영화사 주지 명준 스님은 조계종이 진행 중인 '백만원력결집' 모금사업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백만원력결집은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인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세우고, 청년들에게 법을 전할 군법당과 도심포교당을 세우는 등의 종단 목적사업이다.

진우 · 명준 스님 1000만원 기부
탄자니아 학생, 안과 수술 등
다양한 계층 돕기 나서

7년간 저소득층 안질환 수술비 지원 '개안수술' 사업을 위해 7000만원을 기부해 온 백경남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다시 기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동행의 개안수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숙자 씨는 탄자니아 사업에 2016년부터 매년 2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에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운영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대상 영양죽 지원 '해피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숙자 씨는 올해 6월에도 이 사업에 200만원을 기부했다. 현재 이숙자 씨는 매년 1000만원을 자선단체 곳곳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뿐만 아니라 매달 사무국에는 이른바 쌈짓돈을 후원하는 이름없는 후원자들도 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이들은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며 보시행을 실천했다.

이런 불자들의 후원에 대해 아름다운동행 측은 "사회 각계각층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꾸준히 전개하여 이러한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조계종이 지난 2008년 설립한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으로 병원, 요양원, 학교, 유치원 등 불교계 시설건립 기금과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기금 모금을 위한 '팔만사천결사' 모금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을 위한 '더불어(魚)저금통 모금 캠페인 등도 활발히 벌이는 중이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동국인 마음 담아 고인 기립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故최종근 하사 추모석 제막

고인 복무 중 모은 1천만 원
유가족 동국대 경주캠에 기부

청해부대 입항 행사 중 순직한 故최종근 하사의 모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그를 기리는 추모석이 세워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6월 25일 교내 진흥관 앞에서 청해부대 복무 중 순직한 故최종근 하사 추모 식수 및 추모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유가족과 고인이 근무했던 청해부대 간부와 동료병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와 직원, 경영학부 교수와 학생, 학군단 후보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6월 25일 교내 진흥관 앞에서 청해부대 복무 중 순직한 故최종근 하사 추모 식수 및 추모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추모 나무와 추모석은 故최종근 하사가 공부하던 진흥관 앞 화단에 설치됐다. 추모 식수한 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천년'을 산다는 뜻을 가진 '주목'이며, 추모석은 경주 남산서 부처님을 조성하던 자연 화강석에 추모 내용을 붓으로 쓰고 정으로 새겼다.

또한 유가족들은 고인이 군 복무 중 받은 급여와 수당을 모은 1000만원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했다.

유가족 대표인 故최종근 하사 부친은 "위령제를 열고, 추모 식수와 추모석을 조성해 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신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감사드린다"며 "학교 가는 것을 참 좋아했던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의 모교에 기부했다. 앞으로 종근이가 생각날 때면 아들 나무를 찾아오고 싶다"고 말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추도사를 통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사랑하고 학우들에게 항상 웃음으로 대했던 고인을 영원히 우리 곁에 두게 됐다"면서 "우리 '최종근 학생'은 그가 다니던 경영학부 학우들이 공부하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故 최종근 하사는 2016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에 입학했으며 해군 복무 중 지난 5월 24일 순직했다. 신성민 기자

자유를 원하면 출가하세요

조계종 교육원 하반기 출가자 모집 공고

8월 28일까지 등록 권장
등록 시 내년 2월 수계

조계종이 올해 하반기 출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출가, 자유와 자비의 길' 캐치프레이즈로 2019년도 하반기 출가자 집중 모집을 공고했다. 출가자 집중 모집은 '출가 절벽시대' 대응책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매년 2차례 출가 집중안내 기간을 정하고 출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하반기 집중등록기간으로 이 기간에 등록하면 행자생활을 거쳐 내년 2월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된다. 출가대상은 만13~50세(1970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등록 절차는 전국 조계종 사찰 중 원하는 사찰을 선택하고 사찰에 거주하는 스님과 출가에 대해 상담후 출가하면 된다.

조계종 출가 스님에게는 필요한 주거 · 교육 · 의료 등 일체 혜택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입원진료비 · 요양비 등이 지원된다.

소년출가자, 청년출가자의 경우에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시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원 진학 시 장학지원, 군승 지원 시 특별 선발한다. 특히 소년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출가에 대한 문의는 조계종 교육원(02-2011-1801)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출가상담은 출가상담전화(1666-7987)로 출가상담사 스님과 상담을 할 수 있다. 조계종 출가 사이트(monk.budd hism.or.kr)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2020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선정절차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실사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2019년 7~8월	2019년 8월	2019년 9월	2019년 9월	2020년 1~12월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심사	서류심사 합격 사찰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면접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면접심사 합격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평가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선정	예비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운영사찰 지정 관련 기본요건 충족 확인	제출서류
2차 면접심사	대표자(주지스님)의 템플스테이 운영계획 청취	면접심사 평가표
3차 현장실사	사찰의 참가자 수용태세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7월 19일(금)
···제출서류 : ① 2020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붙임'자료 포함)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원본 및 파일 제출
① 원본제출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② 파일제출 : suko@templestay.com으로 제출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서류심사 결과발표 : 공문을 통해 개별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윤석호, 02)2031-2031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원경